

프리미엄조선 Q&A 기자에게 물어보세요

소설 제목과 같은 영화 제목... 저작권은?

Q 영화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최근 개봉한 영화를 살펴보다가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개성적인 '황제를 위하여'는 이문열 작가의 장편소설 '황제를 위하여'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문열 소설의 주인공은 정갑록에 나오는 인물로, 조폭을 다룬 이변 영화와는 그 내용상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작품 제목은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은수·민음사 대표편집인



A 영화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법조인과 영화인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목을 저작물에 포함하지도 않고 저작물로 보호하는 별도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 예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는 이전에 같은 제목의 무용극이 있었습니다. 무용극의 창작자가 영화 제작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목은 같지만 실질적 구성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게 판결 취지였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는 외국 고전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열한 거리' '달콤한 인생' '공공의 적' '무방비 도시' '응사받지 못한 자' 등이 모두 그 예죠.

그러나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 건 '창의력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 속하는 외국 원작 영화보다, 10~20대 관객들에겐 제목을 베껴 쓴 한국 영화가 더 잘 알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희원 영화담당 기자



기자에게 물어보려면 프리미엄조선(premium.chosun.com)에 로그인 한 뒤 배너를 클릭하세요. 질문은 조선일보와 프리미엄조선의 기사에 한정됩니다. 문의 1577-8585

“유대인이 나치 戰犯 추적하듯 한국도 위안부 가해자 찾아내야”

나치 전범 끝까지 쫓는 '사이먼 비젠탈 센터' 주로프 소장

“일본을 세계 앞에서 부끄럽고 난처하게 만드는 건 피해국이었던 한국의 의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는 있는데, 왜 위안부를 모집했던 군부 책임자나 관련자는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나치 전범(戰犯) 추적 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에프라임 주로프(66) 예루살렘 사무소장은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개인 경호원을 고용해서라도 일본 군부의 위안부 모집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는데,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주로프 소장은 “일본인 정치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물론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한국은 위안부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크게 조성하고 유네스코 기록 문화 유산으로 신청해서 전

세계에 위안부의 사연을 알려야 했는데 한국인들은 너무 점잖은 것 같다”고 했다.

미국계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 전공 역사학자였던 주로프 소장은 센터 설립자인 사이먼 비젠탈과 함께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오다 1986년부터 예루살렘 사무소장을 맡고

“나라면 사람 풀어서라도 책임자 찾아 법정에 세웠을 것 이게 피해국이 해야 할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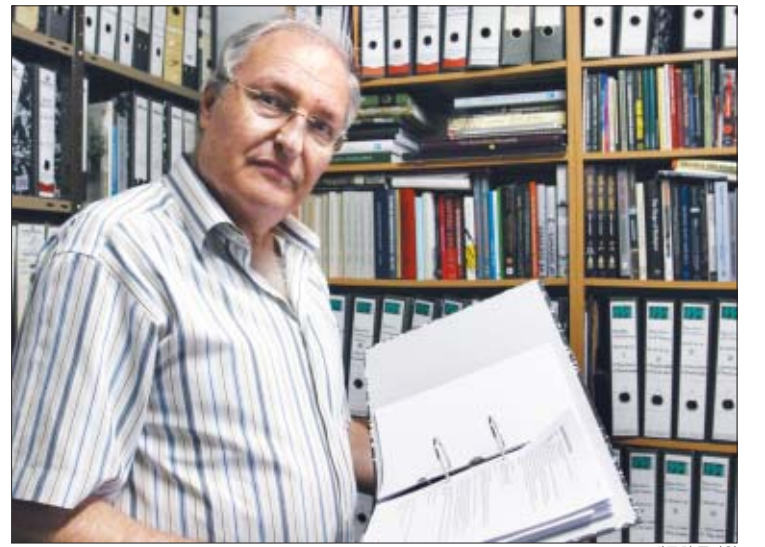
있다. 지금도 그는 매일 100여통의 제보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독일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신분을 숨기고 은신하고 있는 나치 전범에 대한 제보가 쏟아진다.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될 정도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2만5000유로(약 3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국 LA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지난해 받은 기부금은 2200만달러(약 223억원)에

이른다. ‘끝까지 전범을 추적해달라’며 전 세계 유대인이 보내온 돈이다.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 단체는 해마다 나치 주요 전범 리스트를 발표하고 새롭게 현상금을 내린다. 이 때문에 그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 학살)을 부정하는 유럽 극우주의자들의 살해 협박에 시달린다.

전후(戰後) 나치 전범들은 신분을 세탁한 뒤 미국·영국·호주 등으로 이민을 떠나 숨어 살았다.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이런 나치 전범들을 시민권자로 받아들인 세계 각국의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는 “지금 그들(전범들)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건 말도 안 된다. 시간은 흘렀지만 죄까지 사라지진 않는다”고 했다. 결국 각국 정부는 사과 의사를 밝혔고, 전범 추적이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로프 소장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양심 세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연대해야 한다”며 “그들(일본 양심 세력)이 숨어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찾아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박국희 특파원 나치 전범 추적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에프라임 주로프(66) 예루살렘 사무소장은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개인 경호원을 고용해서라도 일본 군부의 위안부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세계 각지에서 제보한 나치 전범 관련 자료를 모은 서류철 수백 개가 빼곡히 꽂혀 있다.

비를 벌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그냥 흘러서 전범들이 죽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내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나치 사냥꾼’이라고 불렀다. 주로프 소장은 “70년이 흐른 지금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이유는 ‘피해자였던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이걸 전범들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에도 함께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했다.

예루살렘=박국희 특파원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유대인 건축가였던 사이먼 비젠탈(1908~2005)이 197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세운 나치 전범 추적단체다. 비젠탈은 2차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가족 대부분을 잃고 구사일생 홀로코스트 생존자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평생 1100여 명의 나치 전범을 추적해 법정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현재 예루살렘·뉴욕·토론토·시카고·파리·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40528-중-58519호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로 고질적 허리통증 개선

통증원인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주파열을 이용해 치료

‘허리 통증은 어느 정도 달고 사는 것’이라며, 나이 탓을 하거나 혹은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해 찜질이나 파스를 붙이기만 하고 병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척추질환은 초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되지만 병을 방치하면 치료 기간과 회복기간이 길어집니다. 휴식을 취해도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척추질환의 가능성이 크므로, 척추 검진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척추디스크 분야에서 30여년간 끊임없는 연구와 수술경험을 가진 김영수원장을 비롯해 수술경험이 풍부한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모여있는 김영수병원과 상의하십시오.

다각적인 정밀검사로 정밀하게 원인 찾고, 치료 후 맞춤형 재활

김영수원장은 엑스레이, MRI(자기공명영상), DDT(외과적체열검사)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증완화프로그램’은 척추 이상을 찾아내고 맞춤형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료하면서, 물리치료가 물리치료까지 일대일로 관리 합니다.

다중진단용 허리통증 척추관 협착증 의심

다리가 찌릿하고 허리가 쭈시기거나, 특별히 누워 자기가 힘들어서 부엌을 구부린 채 옆으로

자신, 허리를 특별히 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굽힌 상태가 편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앉거나 누워서 쉬 때에는 괜찮지만 걷거나 움직이면 다리, 허리, 엉덩이가 심하게 저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30분 정도 걸을 수 있지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의 뼈, 인대 등이 딱딱하게 굳어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이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는 통증과 감각 이상이 생기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더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척추질환 환자 비수술로

허리가 아프면 ‘수술해야 한다’고 지레 겁먹고 치료를 외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영수원장에 내원하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대다수는 고주파수핵감압술, 경막의 신경성형술 등과 같은 비수술치료를 합니다. 그 외, 적응증으로는 추간관협착증, 수술 후 안절부다변성 디스크 전환 또는 수술 후 후궁절제 증후군, 만성 요통 등이 있습니다. 고주파수핵감압술은 카테터(관)를 삽입해 고온의 고주파열을 가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크기를 줄여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법입니다. 경막의 신경성형술은 1~2mm의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통증 유발 부위까지 집어넣어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가라 앉히고 신경압박을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두 시술법 모두 전신 마취가 아니므로 고혈압·심장질환·당뇨병 환자 및 고령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고,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시술시간도 30분~1시간 내외로 짧아 회복이 빠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 및 증상이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일부에서 감염증상이 나타나거나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추·관절 질환 원스톱 토탈

김영수원장은 환자의 증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는 진료시스템을 운영해 환자 맞춤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를 전담으로 진료·시술·물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실, 수술실, 입원실, 회복실 등을 뒤 입원/진단/치료가 하루에 가능합니다. 단,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원장은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원스톱 토탈 케어를 통해 환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김중호 기자 평일에도 인산인해 25일 부산시립미술관 ‘한국 근현대회화 100선’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이 줄을 지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열고 있는 이번 전시는 이날 오후 1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빨래터’, 김한기의 ‘산월’ 등 1920~1970년대 한국미술 대표 작가 57명의 명화 100점이 전시되고 있다.

근현대회화 부산展, 79일만에 관람객 10만 돌파

서울展 포함해 총관객 50만 국내 작가 전시회 역대 최다

“세상에, 좋은 그림 보고 행운도 얻다니 이렇게 멋진 일이지...”

국립현대미술관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 부산전’이 25일 일반 관람 79일 만에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막을 내린 서울전을 찾은 40만명을 합치면 총 50만명이 이번 전시를 관람했다. 국내 작가들의 그림만을 전시한 전람회로서는 역대 최다 관람객 수다. 10만 번째로 입장한 행운의 주인공은 오철호(56)·박정민(55)씨 부부. 이 부부는 꽃다발과 특별도로, 그림 액자 등을 선물로 받았다.



김중호 기자 10만 번째 관람객이 된 오철호(오른쪽)·박정민씨 부부. 두 사람은 이중섭의 작품 ‘황소’를 좋아해 이번 전시를 찾았다고 했다.

전시회가 열리는 해운대 부산시립미술관까지 승용차로 40분 넘게 달려왔다는 오씨 부부는 “좋은 전시회라 꼭 오고 싶어 평일이지만 어렵게 시간을 냈다”고 말했다. 부부는 “그동안 일이 바빠 관람을 미루다가 공은 오철호(56)·박정민(55)씨 부부. 이 부부는 꽃다발과 특별도로, 그림 액자 등을 선물로 받았다.

보고 선물까지 받으니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 전시회는 이중섭·박수근·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 대표 작가 57명의 1920~70년대 주요 작품 100점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자리다. 조일상 부산시립미술관장은 “두 달 남짓 동안 관람객이 10만명을 돌파하는 전시회는 부산에선 아주 드문 일”이라며 “부산에서 다시 보기 힘든 전시회이고 폐막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은 서두르라”고 말했다.

휴일에는 관람객이 하루 2000명을 넘고, 초·중·고교 학생 단체 관람은 물론 동창회, 친목 모임, 학부모 모임 등 각종 친교 활동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시는 7월 6일까지 휴관일 없이 이어진다.

부산=박주영 기자 A20면

ch19 TV조선 투데이 제보 전화 (02)2180-1000

뉴스쇼 판	오후 9시 40분	엄성섭의 일도양단	오후 6시 20분	내용 사용설명서	오후 11시
-------	-----------	-----------	-----------	----------	--------

김영수 병원 1577.5075
www.spinebest.com

진료시간안내 ● 토요일, 휴일 및 점심전후(일요일 제외)
평일/공휴일 오전 09:00 ~ 오후 06:0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5:00

본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4길 15
신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74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출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인사 스타일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 여야 간 극심한 대립 같은 구태(舊態) 현상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연이은 총리 후보자 낙마로 곤경에 처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과 검증 문턱으로 확산되는 유병언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 홍성길 국민대 교수, 정일배 변호사 등이 출연한다.

기름으로 가글을 하는 신개념 구강건강법, ‘오일 풀링’의 비밀을 공개한다. 개그우먼 배연정을 비롯해 심장 질환, 치주염, 구취 등을 앓고 있던 실험단이 10일간의 체합을 통해 오일 풀링의 효능을 직접 검증한다.